

第6節 우리나라 情報産業 標準化 動向

1. 國內 標準化 推進現況

가. 概要 및 現況

표준이란 광의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약속으로 타의 규범이 되는 규칙, 규범 또는 기준’을 말한다. 이는 주로 관리능률의 증진 및 상호호환성·통일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세계 최초의 표준은 1881년 英國의 워트워스가 제정한 나사의 치수에 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標準化는 ‘차별화’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망외부효과의 증진, 불확실성의 감소와 비용절감을 통한 산업의 발전, 중복투자의 방지, 호환성 유지, 그리고 이용자에게 보다 싸고 편리한 서비스의 제공 등 여러가지 잇점을 갖는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표준화는 제품 및 서비스의 다양성 감소 초래, 열등 표준으로의 고착가능성과 무임승차 속성, 기술혁신의 둔화와 개량된 기술 채택의 지연 및 방해 등의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標準化 活動은 일찍이 삼국시대(AD 220~AD 640)에 도량형 제도가 실시되어 이것이 당시의 농경 문화를 확립시킨 데에서 비롯되었다. 1400년대에는 토지제도가 실시되어 농지의 측량에 자(尺)를 사용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하여 농업을 과학화하는 국가적 표준제도의 기원을 이룩하였다. 근대적 산업표준화는 1926년 조선도량형을 발표하여 미터법을 채택한 것을 시초로 1949년 농산물 검사법, 상표법, 1950년 水産物 檢査法 등이 공포·시행되었으며, 이때 우편·철도 등 공공 사업 분야의 자재 규격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산업 표준화 활동은 1961년 9월 30일 법률 제 732호로 工業 標準化法이 제정·공포되면서 시작되었으며 동년 11월에 공업 표준화를 전문적으로 관장·운영할 정부 기관인 상공부 표준국이 창설되었다. 1962년에는 공업 표준의 심의 기구인 공업표준심의회가 발족되었고 그 해 3월에는 공업 표준의 보급, 산업 표준화의 교육 및 지도를 담당할 민간 전문기구인 韓國標準規格協會(현재의 한국표준협회)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1963년에는 國際標準化機構(ISO)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부합성을 갖는 산업 표준화의 촉진, 국제적인 표준화 활동의 동향 파악, 회원간의 상호 이해 증진, 국제 무역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술의 불이익 방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의 표준화 활동은 국제 표준화 기구에 보조를 맞추어 여러 표준화 그룹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994년 현재 국내의 정보처리 분야의 표준규격수는 총 231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 국제규격수가

1,000여건을 훨씬 넘어선 것에 비하면 국내의 표준화 수준은 아직 초보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내의 표준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표준화 업무를 총괄하는 工業振興廳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아울러 산학협동 및 관련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끊임없는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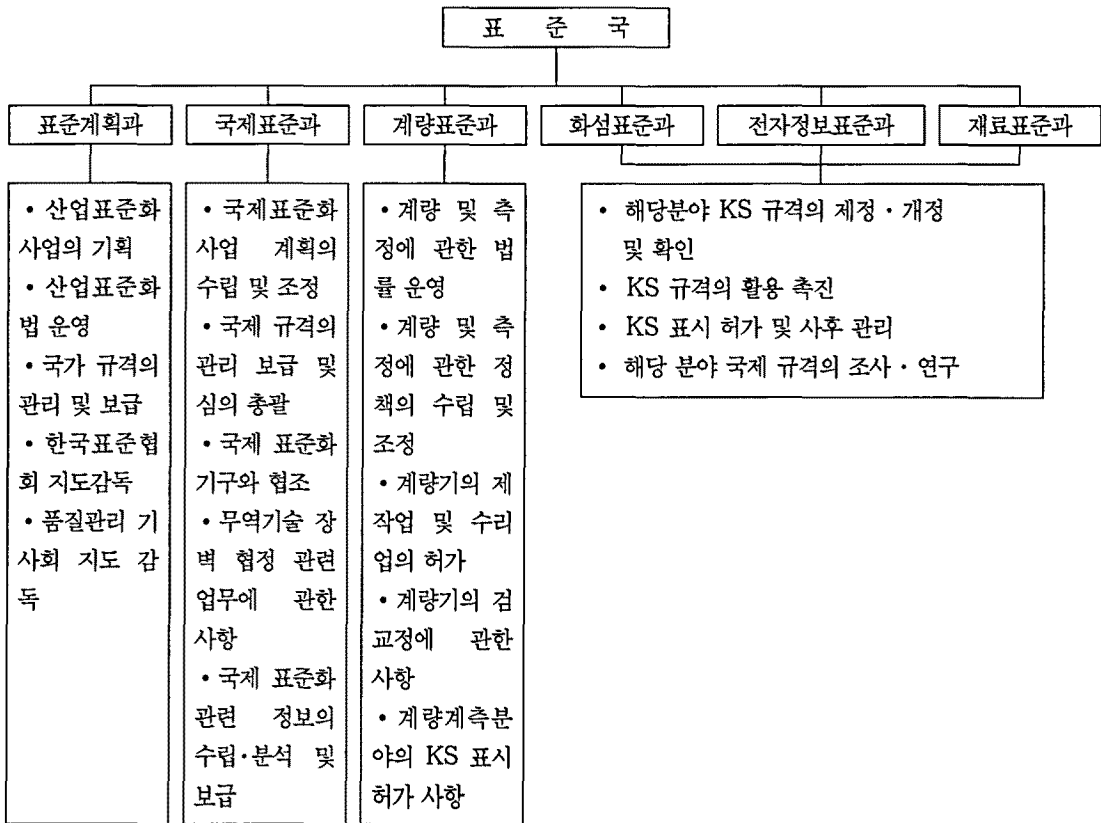
나. 標準化 關聯 組織

1) 工業振興廳

工業振興廳은 상공자원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며 국제표준화기구인 ISO 및 IEC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회원으로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산업 표준화의 촉진, 품질관리의 진흥, 공산품의 수출입 검사, 그리고 기술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 - 6 - 101〉

標準局의 組織 및 業務



工業振興廳의 업무 중 산업 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표준국이 담당하고 있다. 표준국은 6개의 과로 구분되는데, 먼저 표준계획과는 표준화에 대한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집행을 담당하며 국제표준과는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협력업무를 맡고 있다. 또한 기계·전기·금속·화학·섬유·계량 등 분야별 표준화 업무를 맡은 4개의 기술과가 있다. <표 II-6-101>은 표준국의 조직 및 업무에 대해 보여 주고 있다.

2) 産業標準審議會

産業標準審議會는 産業標準化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확인 및 기타 산업표준화 업무에 있어서 공업진흥청장의 자문기관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사무국 역할은 공업진흥청 표준국이 수행하고 있다. 産業標準審議會의 조직은 총회, 표준회의, 부회 및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조자, 소비자, 연구기관, 학술기관 등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총회의 개최는 3년마다 이루어지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과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표준회의는 심의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이 지명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회의 운영부회는 9~15명으로 구성되며 韓國産業規格의 제정·개정·확인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KS 표시 허가 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한다. 또한 전문위원회는 부회의 요청에 따라 9~13명으로 구성되어 부회에서 회부된 규격안에 대해서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구성한다.

3) 情報産業標準院

情報産業標準院은 정보산업분야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술의 진흥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경제 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1년 8월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情報産業標準院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정보산업 분야의 KS 규격안의 최종 연구 및 검토
- ② 정보산업 분야의 단체규격 검토 및 조성
- ③ 정보산업 분야의 국제표준화 간사기관 및 국제적인 대표권 부여
- ④ 정보산업 분야의 표준화 및 최신 기술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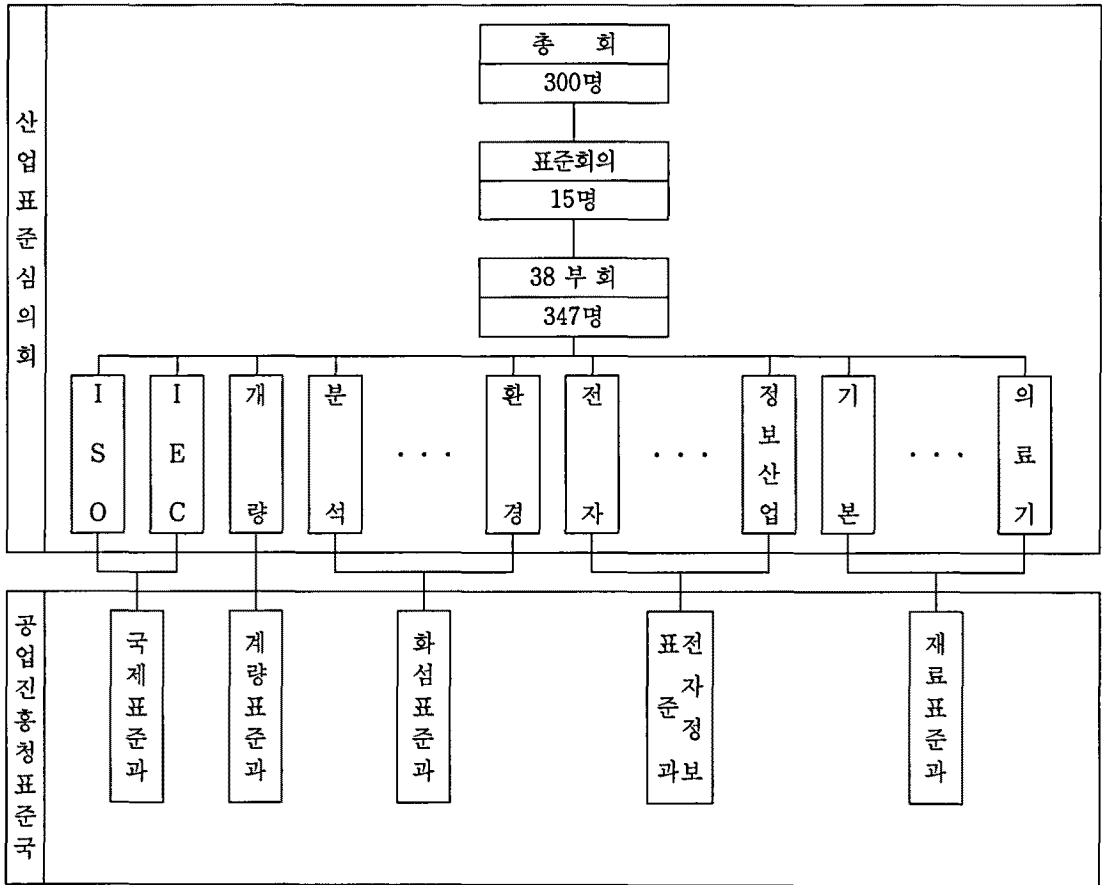
情報産業標準院의 표준화 평의회는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표준화 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분과위원별로 적극적인 국·내외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위상을 정립하고 국내 표준화 의견을 수렴하여 표준화 정책에 반영시킨다.

4) 韓國標準協會

韓國標準協會는 산업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흥과 생산 능력 향상을 하여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공업 표준화법에 의거하여 1962년 3월에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표 II-6-102〉

産業標準審議會 조직



韓國標準協會의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産業 標準化와 품질 관리
- ② 經營 및 관리 기술의 조사·연구를 비롯하여 교육 및 지도
- ③ 관련 자료 및 도서의 出版·普及
- ④ 한국 산업 규격의 발간
- ⑤ 시청각 교재 개발 및 홍보물 제작
- ⑥ 國際標準機構 및 품질 관리 기구와의 상호 협력
- ⑦ 해외 표준 정보의 보급

또한 표준화 및 품질 관리 기법의 추진·보급을 위해 연수원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5) 韓國電算院

韓國電算院은 1986년에 설립위원회 발족과 더불어 체신부장관의 설립인가를 얻음으로써 1987년 개원에 이르렀다. 전산원의 주요 임무는 국가기관등의 전산망 사업 타당성 검토, 정보화 기반 연구 및 정책지원, 전산망에 관한 기술의 표준화, 전산망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기술지도, 中央行政機關 및 전산망조정위원회 위탁사항 수행, 그리고 차세대 국가기간전산망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선행연구와 개발 등이다.

韓國電算院의 '94 주요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이 5개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가) 國家基幹電算網 감리 업무

국가기간전산망 및 공공기관 전산망 감리업무는 국내 전산 감리 제도의 정착 및 발전과 실효성있는 전산망 안전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94년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현재까지 실시해 온 國家基幹電算網 감리 시행업무의 체계를 정비하고 감리의 품질제고에 노력한다. 둘째, 국내 전산감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실현하기위하여 전산감리관련 법령 및 제도를 조사, 검토하여 국내의 환경에 적합한 자격제도의 도출 및 關係法을 정비한다. 셋째, 전산감리기준의 제정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전산감리 실무지침의 세부시안을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공동작업을 통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나) 電算化 기반 연구 및 정책지원 업무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의 합리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國家社會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선진 각국의 정보화 동향 분석 및 정보통신 기술을 분석하고 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정보화를 위한 선행연구는 물론 정책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국가 기간 電算網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서비스 개선방향을 연구하며 정보화 정책 방향의 바람직한 설정과 정보화 응용분야의 기반체제 확보 및 국내 정보화 수준의 국제적 위치 비교 등을 집대성한 정보화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다) 國家基幹電算網 표준화 업무

국가기간전산망 표준화 연구에서는 電算網 標準化 분야를 플랫폼, 데이터 관리, 응용지원, 전산통신, 관리기술, 미디어 분야로 나누어 추진할 예정이다. 플랫폼 분야에서는 워크 스테이션 구매명세서 研究 및 주전산기 구매명세서 표준을 개발하며 전산기 도입관련 정책을 연구한다. 데이터 관리에서는 다기능 사무기기용 자료관리 SQL 표준과 원격지 데이터베이스 접근 국내 표준을 개발하고 응용지원에서는 그래픽 워드 프로세서 화일 포맷 표준을 개발하며, OA용 소프트웨어 호환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電算通信 標準 研究는 TCP/IP 등 De Facto 표준수용과 함께 기간망 통신규약을 개발한다. 관리기술 분야에서는 시험 및 인증에 관한 국제 표준을 수용하며 전산망 안전 표준을 연구한다. 또한 미디어 분야에서는 지역 코드 표준의 개선방안과 성명 색인조회의 통일화 방안 연구 및 政府機關 EDI 표준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라) 國家基幹電算網 운영지원 업무

국가기간전산망의 전반적인 運營支援, 특히 행정전산망의 경우 이용기관의 자체 진단 및 개선실시를 지원하며 주전산기 상위 기종 대체, 신기술접목을 위한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토지, 주민등록, 地價, 建築物 情報의 공동활용에 의한 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을 내무부, 건설부 등과 합동으로 구축하며 정부기관간 네트워크 센터 구축 등 본격적인 연계활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주전산기 II의 상호호환성 향상 및 성능개량작업을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 電算網 보안 업무 및 안전신뢰성 업무

전산망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의 전산관련 안전대책의 기술파악 및 컴퓨터 관련 부정, 범죄 사례 등을 적극 발견하여 이를 종합 정리할 예정이며 이러한 컴퓨터 역기능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산망 안전대책을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 情報處理分野 標準化 規格

韓國産業規格(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은 산업 표준화법에 의거하여 産業標準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함으로써 제정되는 국가 규격으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韓國産業規格은 광공업품을 대상으로 하며 15개의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 중 정보처리 분야는 전기부 문내에 속하며 1993년말 현재 전기부문 규격수 1,172종에서 차지하는 情報處理 분야의 표준화 규격수는 231종으로 약 20%에 해당된다.

〈표 II-6-103〉은 정보처리 분야의 표준화 규격을 나타낸다.

〈표 II-6-103〉

情報處理 분야의 標準化 規格

KS	규 격 명
C 5601	정보 교환용 부호(한글 및 한자)
C 5602	정보처리 용어(기본용어)
C 5603	2값 논리 소자 기호
C 5604	정보 처리용 흐름도, 프로그램 망도, 시스템 자원도 기호
C 5605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COBOL)
C 5606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용어 (1) FORTRAN(수준 7000)
C 5607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정보 교환용 부호
C 5608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자형(영숫자)
C 5609	기관 코드
C 5610	날짜 및 시각 표시 코드
C 5612	성별 코드

KS	규격명
C 5613	회계 회목 코드
C 5614	학력 코드
C 5615	직업 분류 코드
C 5616	산업 분류 코드
C 5617	상품 분류 코드
C 5618	지역 코드
C 5620	정보 교환용 부호의 확장법
C 5621	정보 교환용 단위 기호
C 5622	전자 계산 조직 구성 기기의 성능 표시
C 5623	자기 잉크 문자 인식용 글씨체 및 인자 시방(E13B)
C 5624	정보 교환용 자기 카세트 테이프
C 5625	정보 교환용 자기 카세트 정보 기록 양식
C 5626	6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기계적 호환성
C 5627	6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자기적 특성
C 5628	11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기계적 호환성
C 5629	11매형 자기 디스크 팩의 자기적 특성
C 5630	1매형 자기 디스크 카트리지(윗면 착탈형)의 기계적 호환성
C 5631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인자 사양
C 5632	위상 변조(PE) 방식에 따른 12.7mm 나비, 9트랙, 63 cpmm,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정보 기록 양식
C 5633	정보 처리용 연속 전표
C 5634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C 5635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기본 BASIC
C 5636	정보 교환용 부호(로마 문자)
C 5640	12매형 자기 디스크 팩(100M 바이트)
C 5641	12매형 자기 디스크 팩(200M 바이트)
C 5642	12.7mm 폭 정보 교환용 자기테이프의 셀프로딩 카트리지
C 5643	6.3mm 폭 정보 교환용 자기테이프 카트리지
C 5644	90mm 폭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31831 자속발전/rad
C 5645	13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C 5646	13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트랙 형식
C 5647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한글 수서 문자(26개 자소를 사용하는 풀어쓰기)
C 5648	9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7958 자속발전/rad)
C 5649	9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트랙 형식(7958 자속발전/rad)
C 5650	9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13262/15916 자속발전/rad)

KS	규 격 명
C 5651	9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트랙형식(13262/15916 자속반전/rad)
C 5652	GCR 방식에 따른 12.7mm 나비, 9트랙, 246cpmm, 정보 교환용 자기테이프의 정보 기록 양식
C 5653	정보 교환용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라벨과 파일 구성
C 5654	13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트랙 형식(13262 자속반전/rad)
C 5655	20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C 5656	200mm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의 트랙 형식
C 5657	정보 교환용 부호 확장 세트
C 5658	130mm 한번 쓰기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C 5659	130mm 개서형 광 디스크 카트리지
C 5701	정보 교환용 및 수치제어 기계용 부호의 종이 테이프상에서의 표현
C 5702	정보 교환용 부호의 자기 테이프상의 표현
C 5703	정보 교환용 부호의 종이 카드상에서의 표현
C 5704	정보 교환용 종이 테이프 릴
C 5705	정보 교환용 종이 테이프
C 5706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
C 5707	정보 교환용 종이 테이프의 구멍 위치와 치수
C 5708	정보 교환용 종이 카드 구멍 위치와 치수
C 5709	정보 교환용 종이 카드
C 5710	NRZ-1 방식에 의한 정보 교환용 자기 테이프의 정보 기록 방식
C 5711	정보 교환용 자기테이프의 라벨과 파일 구성
C 5712	정보 교환용 부호 자기 카세트 테이프상의 표현
C 5713	정보 교환용 기능 문자의 도형 표현
C 5715	정보 처리용 건반 배열
C 5721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용 언어 FORTRAN(수준 5000)
C 5722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FORTRAN(수준 3000)
C 5730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수준 7000)
C 5731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수준 6000)
C 5732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수준 5000)
C 5733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수준 4000)
C 5734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수준 3000)
C 5740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의 입출력(수준 70)
C 5741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의 입출력(수준 60)
C 5742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의 입출력(수준 50)
C 5743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의 입출력(수준 40)

KS	규 격 명
C 5744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언어 ALGOL의 입출력(수준 30)
C 5745	전자 계산기 프로그램 및 언어 Ada
C 5750	데이터 전송에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DCE)와 데이터 단말 장치(DTE) 사이의 37/9핀 인터페이스
C 5751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DCE)와 데이터 단말 장치(DTE) 사이의 15핀 인터페이스
C 5754	전송 회선상의 캐릭터 구성과 수평 패리티의 용법
C 5755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DCE)와 데이터 단말 장치(DTE)와의 인터페이스 (25핀 인터페이스)
C 5756	기본형 데이터 전송 제어 순서
C 5757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프레임 구성
C 5758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순서 요소
C 5759	하이 레벨 데이터 링크 제어 순서의 순서 등급
C 5760	정보 교환용 자기 카세트 테이프의 라벨과 파일 구성
C 5761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수서 문자(기호)
C 5762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수서 문자(영자)
C 5763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수서 문자(숫자)
C 5764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기본 참조 모델
C 5765	멀티 링크 절차
C 5766	데이터 부호 알고리즘 DEAI 명세
C 5767	64비트 블록 부호 알고리즘의 연산 모드
C 5768	정보 교환용 데이터 서술 파일
C 5769	결정표
C 5770	정보 교환용 문자열에 의한 수치 표현
C 5771	표시 장치에 관한 정보 교환용 제어 문자 부호
C 5772	POS 시스템용 OCR 수치표의 치수 및 인쇄(인자)시방
C 5773	자기 스트라이프가 부착된 신용 카드
C 5774	POS 시스템용 신용 카드의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인자 시방
C 5775	자기 스트라이프가 부착된 신용 카드의 자기적 정보 기록 양식
C 5776	사무기기용 멀티 스트라이크 인자 리본 감김테의 치수
C 5777	마이크로 필름의 농도
C 5778	친족 코드
C 5779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트랜스포트 서비스 정의
C 5780	컴퓨터 출력 마이크로피시
C 5781	16mm 마이크로 필름의 문서 마크

KS	규 격 명
C 5782	데이터 통신의 네트워크 서비스의 정의
C 5783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커넥션형 트랜스포트 프로토콜 시방
C 5784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기본 커넥션형 세션 서비스 정의
C 5785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기본 커넥션형 세션 프로토콜 시방
C 5786	데이터베이스 언어 SQL
C 5787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 언어(NDL)
C 5788	근거리통신망(LAN)-논리 링크 제어
C 5789	근거리통신망(LAN)-CSMA/CD 액세스 방식 및 물리층 시방
C 5790	유가 증권 코드
C 5801	도면용 35mm 마이크로 필름의 촬영 방법
C 5802	문서용 마이크로피시
C 5803	롤 마이크로 필름의 촬영 방법
C 5804	마이크로 사진용 해상력 시험 도표와 그 용법
C 5805	도면용 35mm 마이크로 필름 종이 카드
C 5806	문서용 마이크로피시 헤더
C 5807	16mm 및 35mm 마이크로 필름용 릴
C 5808	16mm 및 35mm 마이크로 필름을 릴에 감는 방법
C 5809	마이크로 필름 리더
C 5810	공통 상품 코드용 바코드 심벌
C 5811	정보처리 용어(산술 연산 및 논리 연산)
C 5812	정보처리 용어(장치 기술)
C 5813	정보처리 용어(데이터 기술)
C 5814	정보처리 용어(데이터 표현)
C 5815	정보처리 용어(데이터 준비 및 취급)
C 5816	정보처리 용어(프로그래밍)
C 5817	정보처리 용어(제어, 무결성 및 보안성)
C 5818	정보처리 용어(데이터 통신)
C 5819	정보처리 용어(운영기법 및 기능)
C 5820	정보처리 용어(제어장치, 입출력장치 및 연산장치)
C 5821	정보처리 용어(데이터 매체, 기억장치 및 관련 장치)
C 5822	정보처리 용어(도형처리)
C 5823	정보처리 용어(신뢰도, 유지보수 및 이용도)
C 5824	정보처리 용어(프로그램 언어)
C 5825	정보처리 용어(정보이론)
C 5826	한글 베이직 언어

KS	규 격 명
C 5827	정보처리 용어(분산 데이터 처리)
C 5828	정보처리 용어(아날로그 계산)
C 5830	정보처리 용어(프로세스 인터페이스)
C 5831	응용 소프트웨어의 문서화 지침
C 5832	업무용 CRT 표시 장치 및 키보드
C 5833	유통상품 코드용 바코드 심벌
C 5834	소프트웨어 문서화 관리 지침
C 5835	초기 단계 소프트웨어 문서 작성 지침
C 5836	개발 단계 소프트웨어 문서 작성 지침
C 5837	소프트웨어 테스트 문서화
C 5838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글 처리 부프로그램 호출
C 5839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한글 자료 선언과 입출력
C 5840	한글 코볼 언어
C 5841	그래픽 커널 시스템을 이용한 한글 처리
C 5842	개인용 컴퓨터(1)
C 5843	24핀 도트 매트릭스 프린터
C 5844	개인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전자파 장해
C 5845	국명 코드
C 5846	프로그램 구성 요소 및 표기법
C 5847	컴퓨터 시스템 구성의 도형기호와 용법
C 5848	한글 워드프로세서의 문서 화일
C 5849	국제 표준 연속 간행물 번호(ISSN)
C 5850	24 도트 매트릭스 한글 자형
C 5851	단위 조직내 사무 결재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문서 형식
C 5852	개인용 컴퓨터용 키보드
C 5853	개인용 컴퓨터용 키보드 입출력 시스템
C 5854	개인용 컴퓨터용 모노 텍스트 화면 입출력 시스템
C 5855	개인용 컴퓨터용 컬러 그래픽 화면 입출력 시스템
C 5856	개인용 컴퓨터용 모노 그래픽 화면 입출력 시스템
C 5857	개인용 컴퓨터용 고해상도 칼라 그래픽(1) 화면 입출력 시스템
C 5858	정보 처리기기 및 사무기기의 안전성
C 5859	한글 포트란 프로그래밍 언어
C 5860	개인용 컴퓨터 한글 운영체제의 용어 및 명령어
C 5861	유닉스 한글 환경
C 5862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KS	규 격 명
C 5863	전자 문서 구분 규칙
C 5864	한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언어(HSQL)
C 5865	정보자원 사전 시스템 기본틀
C 5866	유닉스 환경에서의 C 언어
C 5867	한국 문헌 자동화 목록 형식
C 5868	정보처리 용어(계산기)
C 5869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기본 참조 모델-보안 구조
C 5870	정보처리 용어(컴퓨터 통합 생산정보관리)
C 5871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의 기본 참조 모델-이름 및 주소 지정방법
C 5872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 기본 참조 모델-관리 골격
C 5873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네트워크 서비스 정의-네트워크층
C 5874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커넥션형 프리젠테이션 서비스 정의
C 5875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추상구문 표기법 1(ASN.1) 시방
C 5876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추상구문 표기법 1(ASN.1)의 기본 부호화 규칙시방
C 5877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어소시에이션 제어 서비스 요소의 서비스 정의
C 5878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어소시에이션 제어 서비스 요소의 프로토콜 시방
C 5879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디렉토리-제1부 개념, 모델 및 서비스 개요
C 5880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오브젝트의 식별과 구성
C 5881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토큰링 액세스 방식 및 물리층 시방
C 5882	ISDN 기본 액세스 인터페이스의 참조점 S 및 참조점 T에서의 인터페이스 커넥터 및 콘택트 배열
C 5883	유통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이용자용 문서 및 외장 표시
C 5884	물리층에서의 데이터 암호화
C 5886	다큐멘테이션 용어(기본 개념)
C 5887	다큐멘테이션 용어(문헌)
C 5888	다큐멘테이션 용어(문헌 및 데이터 수집, 식별 및 분석)
C 5889	다큐멘테이션 용어(다큐멘테이션 언어)
C 5890	국제 십진 분류법(UDC)
C 5891	소형 컴퓨터 시스템 인터페이스(SCSI)
C 5892	플렉시블 디스크 카트리지 장치의 인터페이스
C 5894	정보 교환용 CD-ROM의 볼륨 및 파일의 구조
C 5895	페이지 프린터(1)
C 5897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적합성 시험방법 및 구성, 제1부 일반개념
C 5898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접속형 네트워크 서비스 정의
C 5899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접속형 프리젠테이션 프로토콜 사양

KS	규격명
C 5900	원격조작-제1부 모델, 표기법 및 서비스 정의
C 5901	원격조작-제2부 프로토콜 사양
C 5902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파일 전송, 액세스 및 관리(FTAM) : 제1부 일반개념
C 5903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파일 전송, 액세스 및 관리(FTAM) : 제2부 기상 파일 저장 정의
C 5904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파일 전송, 액세스 및 관리(FTAM) : 제3부 파일 서비스 정의
C 5905	개방형 시스템간 상호 접속-파일 전송, 액세스 및 관리(FTAM) : 제4부 파일 프로토콜 사양
C 5909	그래픽 커널 시스템의 지원을 위한 포트란 언어 바인딩
C 5910	컴퓨터 그래픽스 메타 파일에서의 한글 처리
C 5911	전자 계산기 프로그래밍 언어 파스칼
C 5912	전자 계산기 프로그래밍 한글 파스칼
C 5913	문서 기술 언어 SGML
C 5914	SGML 문서 교환 형식
C 5915	공용 텍스트 소유자의 식별자에 대한 등록 절차
C 5916	개방형 시스템 상호 접속-에스테 : 확장된 상태 전이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형식 기술 기법
C 5917	개방형 시스템 상호 접속-로투스 : 관찰된 행위의 시간 관계에 근거한 형식 기술 기법

2. 標準化 推進課題

가. 次世代 國家基幹電算網 事業

정보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 '87년부터 본격 추진해 온 國家基幹電算網 사업은 1단계 사업에 이어 '92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행정사무의 자동화와 구축된 국가 주요 정보를 토대로 國家經營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그 역점을 두어 왔었다. 그러나 정보 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미 구축된 국가 정보 시스템의 생명주기를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또는 政府부처내의 사용자들조차도 시스템의 접근방법 및 사용방법 개선과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까지 실용화될 각종 신기술들, 예를 들면 次世代 基幹 電算網의 구축과 이를 통한 음성 및 화상 정보의 추가제공, 다양한 정보들이 집합된 데이터베이스 및 멀티미디어 기술의 응용, 위성 통신 및 이동체 통신등의 신기술을 國家基幹電算網에 접목함으로써 국가 기간 전산망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기술의 적용은 우선 실험실 수준에서의 Testbed 구축이나 Prototyping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기술발전 추세나 속도를 고려할 때 가까운 장래에 실제 활용이 가능한 분야가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분야는 분야별로 즉시 국가 기간 전산망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달성할 구체적인 목표로는 다양한 신기술의 접목을 통해 국가 기간 전산망의 가용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가 기간 전산망에 의해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다양화시키며 이를 통해 情報産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예상되는 서비스로는 전자게시판, 강연, 교육, 회의 및 쌍방대화시 네트워크를 통한 각종 인쇄물 서비스, 위성 PCN 등 이동체를 통한 정보조회 등을 들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次世代 國家基幹電算網은 1단계(1993~1995년)에서 국내의 행정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에 의한 현행 국가 기간 전산망의 고도화 방안 및 21세기 서비스 개발 방향, 서비스 대상 업무의 제시와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실현과 보급, 2단계(1996년~1998년)에서는 현행 국가 전산망 시스템의 재구축 준비 및 사업의 추진과 차세대 우선사업의 시범 개발 및 운영지원 그리고 3단계(1999년 이후)에서는 차세대 국가 기간 전산망의 본격적 구축 및 운영지원과 차세대 시범시스템의 구축 및 보급확대를 목표로 한다. '94년에는 작년에 연구한 차세대 국가 기간 전산망의 서비스 대상(서비스맵), 技術開發과정 및 이의 이용에 관한 연구(테크노로지맵), 그리고 21세기 사회 각 분야의 환경변화에 대비한 제도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97년이후(즉, 국가 기간 전산망 2단계사업 이후)의 차세대 國家基幹電算網 기본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실제 실용가능한 분야로 탁상회의시스템, 지적도, 지형도의 입체정보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次世代 국가 기간 전산망 서비스 연구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여 시범예정이다.

나. 次世代 데이터 코드 및 데이터 세트 開發

情報化 사회에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세계 각국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표현방식이 각기 달라서 '정보의 홍수' 상태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보 자원들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종 정보의 기본적인 표현방식을 표준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컴퓨터 이용분야의 확대 및 정보교환에 필요한 문자 및 기호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 표준 코드 문자, 기호에 대한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요청이 사회 각층으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편 국내에서도 국제코드의 제정에 따라 기존의 국내 코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국제코드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지만 그 시기가 늦어 국내의 충분한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장차 國際標準으로 채택될 UCS에 대한 현행코드의 대체 방안과 국내 각계 각층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렴하여 우리 고유의 문자세트에 대한 개발과 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次世代 데이터 코드와 관련된 분야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① 한글 옛글자 부문

약 300종 정도의 고문헌 전산 입력자료를 바탕으로 한글 옛글자의 용례와 사용 빈도에 관한 사항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코드 처리의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아울러 현대 한글과 옛글자를 통합한 한글 자모의 배열 순위의 최적화 방안을 연구한다.

② 漢字 부문

자형의 차이를 논함에 있어 통합한자 코드세트의 이용자는 한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자형이라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언제나 수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한 한자의 자형이 각 國家標準에서 각기 달리 표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국가표준이 공통으로 포함된 경우는 그 자형을 그대로 따르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의 국가표준에는 없는 13, 426자의 경우이다. 우리의 국가표준에는 없는 3국 공통자나 2국 공통자가 서로 자형이 다를 경우 어느 자형을 택할 것인가 또는 단독자일 경우라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KS의 체계와 다를 경우에는 변형시켜 KS의 체계와 맞출 것인가 등을 결정해야 한다.

③ 한글부문

國際公用글자판(UCS BMP)상에서의 한글영역이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문자정렬 및 한국어 정보처리에 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한글 자모 영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어 처리를 위한 자소분리가 불가능하여 문자인식 및 음성처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다. 데이터베이스 關聯 標準化

데이터베이스 關聯 標準化는 크게 데이터 분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분야,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이용 분야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 분야는 데이터에 대한 표준 개념을 부여함으로써 데이터의 원활한 교환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ISO/IEC/JTC 1/SC 14를 중심으로 주로 데이터 코드 분야에 치중하고 있다. 국내는 C 5609부터 C 5618까지 KS 규격 코드가 있으며 경제기획원의 표준 산업분류, 韓國電算院의 행정전산망 공통 데이터 표준, DPC의 정보 분류체계가 연구중에 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분야는 데이터 관리 기술의 표준화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통합, 공유하고자 한다. 이 분야는 ISO/IEC/JTC 1/SC 21을 중심으로 활동중이며 국내에서도 韓國電算院, 情報産業標準院 등이 국제 표준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작업도 진행중이다. 이 분야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언어(DBL), 정보자원사전시스템(IRDS), 데이터 관리 참조 모델(RMDM), 원격 데이터베이스 접근(RDA), 분산 트랜잭션 처리(DTP), 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OODB),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의 세부내용을 다루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이용 분야는 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방법의 標準化를 추진하는데 현재 국제적으로 ISO 차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산업체에서 자체 상품 개발을 위한 사내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추진조직체계를 살펴 보면, 우선 표준화 산업의 주도는 사업의 특성상 체신부의 정책적 의지와 한국통신의 財源支援을 고려하여 이 두 기관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표준화 연구는 産·學·研 협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情報産業標準化 發展方案

가. 情報産業標準化 추진상의 문제점

1) 정보산업분야의 國家標準規格 제정 저조

정보산업분야의 國家標準規格(KS규격) 제정이 국제표준에 비해 뒤떨어져 있으며, 매년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정보산업분야의 국가표준은 工業振興廳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93년말 현재 정보산업분야의 KS규격은 231종으로 20년간 연평균 10여건 제정에 불과한 실정이다. '93년말 현재 정보산업분야 국제규격이 862종 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KS규격제정은 국제규격의 27% 수준에 불과하다.

〈표 II-6-301〉 연도별 정보산업분야 KS제정 현황

구 분	'74-'86	'87	'88	'89	'90	'91	'92	'93	계
규 격	91	19	14	12	22	11	35	27	231

* '94년도 제정계획:54건

〈표 II-6-302〉 정보산업분야 표준화 현황 ('93년말 현재)

구 분	국 제 규 격 수	KS 규 격 수
정보일반	284	75
S/W	184	46
H/W	171	66
통신분야	223	44
계	862	231

2) 제정된 규격의 실효성 및 현실성 결여

標準化가 시급한 일부 규격 이외에는 인력과 예산이 적게드는 손쉬운 규격부터 산발적으로 국가규격을 제정함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 실제로 정보산업분야 국가표준(KS)이 ISO 규격 또는 일본의

工業規格(JIS)을 상당수 그대로 적용하여 한국실정에 맞는 표준의 연구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93년말 현재 ISO 또는 JIS규격과 같거나 유사한 정보산업분야 KS규격은 약 180건으로 정보산업분야 KS규격 231건의 77%에 해당된다.

3) 民間團體의 標準化 기반 취약

주요 선진국의 경우 민간단체의 표준화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관련업계는 표준화가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나 표준화를 위한 투자에는 인색한 면이 있다.

이것은 업계의 표준화에 대한 투자효과가 업계의 이윤과 직결되지 않는 면이 있어 표준화는 政府가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표준화의 단계는 사내(기업체)표준화, 團體標準化, 國家標準化, 國際標準化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후진국은 기술도입의 수단으로 표준화제도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을 먼저 적용하고 나서 국가표준화 → 단체표준화 → 사내표준화 순으로 하향식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技術선진국은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세계 시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표준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내표준화 → 단체표준화 → 국가표준화 → 국제표준화로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화에 관한한 기술선진국으로 진입할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 하겠다.

4) 國際標準活動의 미흡

국제표준화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국제 표준화 작업에의 참여활동이 부진하고 국제표준의 검토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실제로 회의개최 및 참석현황을 보면 國際會議 개최는 연간 약 220회에 달하나 여기에 국내전문가가 참석하는 경우는 연간 약 10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리고 국제표준제정(안)검토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써 國際技術動向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국내의견을 국제 규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93년의 경우 표준화 관련 국제문서접수가 6,140건에 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검토한 후 의견을 제시한 것은 400여건밖에 달하지 않아 검토율이 고작 6.5%에 불과하다.

또한 國際機構(ISO/IEC)에 대응하여 國內 위원회가 23개 구성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각 委員會(SC)별로 활동이 미약하다. 각 SC 산하의 Working Group별로 기술적인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나 예 산상의 문제로 회합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5) 部處間 협조체제 미흡

情報産業 標準化 활동이 관계부처에서 분산 추진됨으로써 부처간 협조체제가 다소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국가표준업무를 工業振興廳이 담당하고 있으나 기기산업과 통신망에 대한 표준업무는 工業振興廳 및 遞信部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

즉, 공업진흥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 관련된 정보산업 전반에 대한 표준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체신부는 國際電氣通信聯合(ITU)에 관련된 전기통신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다.

법률상 “電氣通信基本法” 제29조 및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2에 의하면 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 및 전산망 관련 표준화를 추진하되 산업 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규격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정보산업에 관한 표준제정이 韓國産業標準院, 韓國電算院 등 몇개의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점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정보산업분야의 융합화 현상에 따라 정보산업에 있어서는 부처별 업무가 Polcymix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 불때 부처간 또는 관련단체간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망된다고 하겠다.

〈참고〉 표준화 추진기구 개요

- 韓國産業標準院: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산업표준 관련 규격안의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보급 등 담당
- 韓國電算院: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전산망 표준화계획 수립 및 규격안 연구개발
- 電氣通信技術協會: 전기통신표준화규격안 연구개발
- 韓國 EDIFACT 標準院: 민법 제32조 및 무역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산업에 대한 EDI 보급·촉진·고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UN에 대하여 EDI에 관한 한국대표기관임

나. 情報産業標準化 發展方案

1) 基本方向

情報産業標準化의 발전방안은 우선 정보산업의 발전방향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중심의 실질적인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는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첫째로 정부 중심의 규격제정 확대와 병행하여 기업등 이용자 중심의 표준화 활동을 전개하고 정보기기, 정보망 서비스부문의 표준화 관련 부처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고, 정보산업부문의 國際·國家·團體·사내표준간에 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인 표준과 상호호환성을 갖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산업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화의 국제동향파악 및 파악된 정보의 업계제공기능을 제고하고 국제규격 초안 작성시부터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규격의 27%에 불과한 國家規格 제정율을 향후 5년 이내에 50% 수준까지는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세째로 국가 기술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표준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표준화분야에 대한 技術開發(R & D) 투자를 강화하여야 하고, 특히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국제규격을 우리 실정에 맞게 표준화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세부 추진방안

가) 國家規格의 지속적 보완 및 신규제정 추진

우선 '93년말 현재 231종에 달하는 정보산업분야 KS규격이 ISO규격이나 일본의 工業規格(JIS)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많으므로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그리고 20여년간 연평균 10여건 제정에 불과한 정보산업 KS규격을 향후 매년 100~150여종의 國家規格(KS) 제정으로 5년내 정보산업분야의 국가표준을 국제수준으로 제고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표II-6-303〉

정보산업 KS규격 제정 추진계획

구 분	'95	'96	'97	'98	'99	계
규격수	100	150	150	150	150	700

이를 위해 '95년부터 신규조정을 추진중인 商工資源部の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으로 정보산업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95년도 동 자금에서 정보산업표준화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또한 적정과제 발굴로 공업기반사업자금등 연구개발자금에서 情報産業標準化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실제로 상공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중 표준화 관련 지원은 '93년에 4개 과제 3.2억원, '94년에 6개 과제 5.2억원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주요표준화 지원대상분야〉

- 데이터분야 : 데이터요소, 데이터관리 등
- 소프트웨어분야 : 소프트웨어 공학, 시스템 신뢰성, 프로그래밍언어 등
- 전산망분야 : 개방시스템 상호접속(OSI), 통신망 구조, 전자문서교환 등
- 미디어분야 : 자기매체, 광학매체, 식별카드, 지각미디어, 표현미디어 등
- 컴퓨터응용분야 : 그래픽, 자동화, 인터페이스, 마이크로컴퓨팅 등
- 한글처리분야 : 한글코드, 한글프로그래밍언어, 한글인식, 한글운영체제 등

또한 국가규격 제·개정 및 국제규격 심의를 위해 국내 專門委員會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각 분과 위원회별로 관련단체, 협회, 학회를 간사 기관으로 지정하여 정관에 표준화 사업명기 및 위원회 활동비·국제회의 참가비 등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민간이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표준화추진을 위해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등에 대한 KS표시규격준수(산업표준화법 제32조) 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각종 보도매체, 정기 간행물 등을 통해 KS표시규격 준수 및 KS규격 제정상황등을 신속히 홍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 標準化 추진 조직의 재정비

표준화 총괄기관으로서의 국가기관인 工業振興廳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공업진흥청의 1개과(기전표준과)에서 기계 및 정보산업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94. 7월 직제개편에 따라 정보산업표준화의 전담과(전자정보표준과)가 신설된 것은 바람직한 개편이라 하겠다. 또한 정보산업표준화에 대한 연구 및 규격제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韓國産業標準院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산부족으로 한국산업표준협회의 출연기관화 되어 있는 한국산업표준원의 인력 및 예산을 보강하여 향후 수년내 명실상부한 표준연구·개발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산업표준원이 향후 3년간 업계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韓國産業標準院 발전기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보산업 표준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에 적극 호응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다) 國際標準化 활동의 강화

표준화의 국제동향파악과 업계제공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는 그 특성상 사후 표준화보다는 제품의 研究·開發 이전에 표준화하는 사전 표준화를 지향하여야 하므로, 韓國産業標準院·韓國標準協會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동향 및 기술규격 등 관련정보를 입수하여 업계에 보급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서비스 기능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규격 초안 작성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산업계 및 학계가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여 국제규격에 국내의견을 보다 많이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고, 국제회의유치 및 국제회의의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표준화에 대응하여 국내 專門委員會 구성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정규멤버 가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일간 멀티미디어 표준화 협력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다. '94. 5월 韓·日 通商長官會談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멀티미디어산업협력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표준화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의 상공자원부와 일본의 통상산업성간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라) 國家標準制定體制의 일원화를 위한 협의회 구성 추진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르면 표준기구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국가표준제정체제를 일원화하고 표준업무조정을 위한 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商工資源部는 電子·情報機器 및 S/W 등 정보산업표준을 담당하고, 遞信部는 전기통신·통신네트워크

관련 표준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공자원부, 체신부, 공진청 등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그 주요기능은 정보산업, 전기통신분야 표준화 등 부처별 정보산업분야의 표준화연구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하고, 중복이 우려되는 분야의 표준화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電氣通信基本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부처별 관계법령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고자 할 때 공업진흥청에 이를 KS규격으로 제정토록 요청을 의뢰하여 국가 표준제정의 일원화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정보산업의 표준화시 필요할 경우 관련부처를 참여토록 유도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